

# 깊고 푸른 얼굴

2015년 6월 창간·통합1호

www.lamp.kr

2016년 12월호

교사교육 3강

## 다음세대 문화이해하기(2)

김정현 | 초등2부 담당 전도사

※ 편집자 주 : 남포성경학교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있었습니다. <깊고푸른얼굴>에서는 그때의 강의를 녹취, 편집하여 수차례에 걸쳐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호에 실었던 '다음세대 문화이해하기(1) - 웹툰' 에 이어 아이돌 문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II. 아이돌 문화 강의



사진. 아이돌 그룹 '엑소' (EXO)

이미지 출처 : <https://www.tumblr.com/search/exo>

저는 아이돌 문화 발제를 맡은 초등2부 김정현전도사라고 합니다. 아이돌 문화라는 말은 선생님들이 듣기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1. 아이돌 문화는 무엇일까?

우선 정의를 내려 보면 아이돌 문화는 10대 청소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연예인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 팬으로서 거의 복종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주는 문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진은 최근에 가장 많은 팬 수를 확보하고 있는

▶ 2쪽에서 계속

Issue 이슈	교사교육 3강	News 뉴스	
김정현	다음세대 문화이해하기(2)	1	사랑부
			유아부
			유치부
Series 연재	시연아빠의 다세이(11)	19	초등1부
안성희	Ad Libros(3)	20	초등2부
편집부			초등3부
Notice 공지	광고	17	고등부
			참된 구원의 세계
			7
			떠올리게 된 기억
			9
			칠혹 같던 문학의 밤
			10
			올 나잇 크리스마스 이브!
			12
			맘매, 맘매!
			14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16
			교회 오는 아이들
			17
			회상
			18

엑소(EXO)라는 그룹입니다. 원래 멤버가 12명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인 멤버들 루한, 크리스, 타오가 빠진 상태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평균 나이는 올해 24.9세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2012년에 데뷔할 때 나이는 평균 나이가 20살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젊은 청년들이 데뷔를 한 것입니다.

육성재라는 가수가 속한 '비투비' 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그룹도 데뷔를 2012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그룹원의 평균 나이가 24.8세였습니다. 그런데 보이그룹에 비해서 걸그룹은 좀 더 데뷔연령이 낮습니다. <앳츄>라는 노래로 유명한 '러블리즈' 라는 그룹은 데뷔할 때 평균 나이가 19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아주 인기가 많은 '트와이스' 라는 그룹도 평균 나이가 19세 때 데뷔를 합니다. 그러나 십대 아이들이 자신과 나이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며 굉장히 멋진 친구를 사귀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요.

## 2. 아이들 문화에 어떻게 빠지는 것일까?

아이들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빠져드는 과정을 다음의 단계들을 통해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1) 그를 만나다

친구, 대중매체를 통해 아이들을 접함  
첫 번째 단계는 '그를 만나다' 단계입니다. 약간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보통 여자 아이들이 아이들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를 만난다는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 ① 또래 집단의 대화를 통한 접촉

##### (자연스러운 접촉점)

아이들은 보통 친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을 전혀 모르다가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예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아 이런 연예인이 있었네!'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 ② 대중매체를 통한 접촉

아이들이 아이들과 친숙해지는 두 번째 경로는 대중매체입니다. 요즘 대중매체는 아이들을 다루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음악 채널인 엠넷(Mnet)이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1.에 편성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9개의 본방송 중에 5개의 프로그램이 아이돌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엠넷이라는 방송사 자체가 청소년들이 주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대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에 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역으로 그렇게 자주 아이들에 관한 방송을 하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을 친숙하게 여기게 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표1.을 보시면 화요일에 방송되는 <펜타곤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들은 아이돌기획사 중의 하나인 '큐브엔터테인먼트' 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데뷔를 목표로 하는 연습생들입니다. 그들을 그룹을 나누어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매회 미션을 주고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출연자들이 아이돌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깨닫고 보완해 보다 나은 가수로 데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쟁하는 모든 이들이 데뷔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데뷔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니 매우 치열한 양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경쟁을 뚫고 아이돌로 데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친숙함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출연자를 응원하게 되면서 그 가수가 정식으로 데뷔하기도 전에 팬이 되기도 합니다. 데뷔를 앞두고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아이돌 메이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 송 요 일	화	목		토	
방 송 시 간	23시	18시	19시 30분	18시	23시 30분
프 로 그 램 명	펜 타 곤 메 이 커	엠 카운트 다운	우주 like 소녀	꿀 벌 소녀 대	소 년 2 4
프 로 그 램 유 형	아이돌 성장과정	음 악 방 송	아 이 돌 사 생 활	서 바 이 별	서 바 이 별

표1. Mnet 아이돌 프로그램 편성표(2016년 6월)

목요일에는 <엠카운트 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선생님들이 예전에 즐기던 <가요톱텐>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의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 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프로를 시청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우주소녀>는 아이들의 사생활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루 종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주소녀' 라는 걸그룹이 출연자들인데 멤버들끼리 수다 떨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시켜먹고 이런 내용들을 방영합니다. 사실 우주소녀라는 그룹은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송을 하고 나면은 인기 걸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십대들이 그들과 사생활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친근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방송되는 <꽃별소녀대>라는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걸그룹을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걸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서바이벌 형식으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소년24>라는 프로그램도 49명의 남자 아이들 지망생 중에서 24명을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 중에 반절정도가 탈락하게 되는데 그것은 시청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전에 방송되었던 <프로듀스 101>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에서는 101명의 여자 아이들 지망생 중에 11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명에 들어간 멤버들은 아이오아이 (I.O.I)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지요.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쉽게 빠지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또래 문화나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빠지지 않는 아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가까운 소재들을 가지고 아이돌들을 선전하는 프로그램들에 자주 노출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③ 외모, 재능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됨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들 모두에게 현신적으로 사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한 인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아이들을 볼 때 '저 가수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에요. 그리고 아주 재능이 아주 특별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라며 그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외모나 재능을 가진 특정 아이들을 정하고 더욱 더 그에게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각 개인이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사야 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도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재능 있는 아이들을 계속해서 내어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키거나 성을 상품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정 걸그룹이나 어떤 그룹의 한 멤버가 뛰어난 외모를 가지지 못했지만 제법 알려지게 된 경우 '외모의 부족함을 상쇄할 정도로 노래를 엄청 잘한다.' 라든지 '멤버의 아버지가 소속사 사장님이 아닌가?' 와 같은 댓글들이 인터넷에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뒷면에는 외모가 아주 뛰어난거나,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가수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쁜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 기획사에서 마케팅을 위해 아이들 멤버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화보나 의상, 안무 등을 보면 '대놓고 섹시하자' 를 표방하는 듯합니다. 화보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깔들을 쓰면서 동시에 맨살을 많이 드러내 보는 이들의 눈을 자극합니다. 최근에는 보다 순수한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성적인 강조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는 것보다 더욱 악랄한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피디수첩> 같은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도 여자아이들에게 교복이나 제복을 입히는 동시에 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관음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여자 아이들에게 하늘하늘한 교복 스타일의 옷을 입혀 남자들이 하여금 성적인 상상을 자극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것인지 요즘에 데뷔되는 그룹들을 보면 발달하고 소녀 같지만 동시에 성적인 어필도 매우 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강조는 여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마케팅 속에서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에게 빠지게 됩니다.

### ④ 자극 단계

**: 다른 팬들이 스타를 만난 사진이나 후기를 보며 나도 저들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아이들은 한 명의 가수나 하나의 그룹을 단순히 선호하는 현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다른 누군가를 찾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제 엠카운트 생방송에 갔는데, 거기서 엑소랑 사진을 찍었어. 심지어 손도 잡았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엑소 좋아하는데, 나는 아직 손 한 번도 못 잡았는데, 나는 한 번도 사진 못 찍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옆의 친구랑 나랑 별 다를 게 없다는 생각도 들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할 수 있겠지? 나도 엑소 오빠 손 한번 잡아볼 수 있겠지? 나도 엑소 오빠들이 나오는 공연이나 팬 사인회 같은 곳에 가볼까?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심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문제이지요.

## 2) 나를 위한 그

### : 스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시함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나에게 네(아이들)가 필요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 너무 신이 나요. 아이들이 춤을 따라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챗바퀴 같은 일상에 갇혀서 공부만 하지만, 성적도 그리 좋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 오빠들을 보면 이미 성공도 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 보여요. 그런 오빠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대리만족 즉,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 오빠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넓은 대인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소심했던 친구가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팬클럽활동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여기가 나의 필요를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그를 위한 나

### : 스타를 위해 소비, 경쟁, 헌신적 활동함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 ‘너(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라는 단계로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아이들 스타에게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요. 사실 아이들은 그 팬이 존재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팬 입장에서는 ‘너에게는 내가 필요’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허비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과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오빠들은 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제 이 오빠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행동들을 낳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스트’ 라는 인기 있는 아이들 그룹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그룹의 팬 카페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들을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팬 카페 차원에서 팬들에게 내려진 이런저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비스트 1등 만들기 프로젝트’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각종 음악프로에서 어떻게 1위를 선정하는 지 그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스트라는 그룹이 그 기준에 따라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 앨범 구매를 열심히 하고, 방송사에 문자도 열심히 보내고, 인터넷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스트리밍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비스트 오빠들이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자지 않고 이 스트리밍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비스트 오빠들이 1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빠들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도 마음껏 투자할 수 있고, 1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돈도 얼마든지 쏟아 부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청소년들이 받는 용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아이들들은 이미 받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자기의 용돈들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 오빠들이 혹시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들을 향해 그야말로 완전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우리 오빠 욕한 사람 혼내주세요.’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엑소EXO라는 그룹의 카이라는 남자 아이들과 에프엑스(x)라는 그룹의 크리스탈이란 여자 아이들이 열애설이 났는데,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이 그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의 피해자인 아이들들은 법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인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엑소의 팬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대신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카이 오빠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더욱이 “변호사 비용은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변호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팬들이 이런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들 중에서 팬인 우리를 욕하고 있는 댓글들을 다 모아왔으니 그 사람들을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하지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오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돈과 어떠한 것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 3. 아이들 문화의 영향

#### 1) 부정적 영향

##### ① 아이들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 문화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때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딘가에 의존할 곳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경향이 아이들을 향하면서 매우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생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사생이란 말은 죽을 死자에 살 생자를 씁니다.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죽도록 쫓아다니는 극성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인터넷 뉴스에 위에서 예를 들었던 엑소라는 그룹의 한 멤버에게 일어난 일이 실렸습니다. 찬열이란 멤버였는데, 그 친구가 광고촬영 때문에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탄 차 주변으로 20대 정도의 차량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까지 따라간 팬들이거나 중국인 팬들이었겠지요? 20대의 차량이 찬열이란 가수가 탄 차를 둘러싸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빠 나 좀 봐 줘요' 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하고, 나는 이 오빠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만족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열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SNS 계정을 해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 오빠의 모든 것을 알려고 밤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향해 지나치게 극단적인 의존성과 과한 집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 ② 과도한 집단 활동

더욱이 과도한 집단 활동으로 아이들을 향한 청소년들의 마음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들 그룹이나 자신이 속한 팬클럽을 상징하는 색깔이 들어간 풍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그룹이 적을 때는 별상관이 없었는데, 그룹의 수가 많아지자 중복되는 색깔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생들과 중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콘'이라는 아이들 그룹의 팬클럽이 다홍색 풍선을 썼었는데, 기존의 '신화'라는 그룹의 팬클럽이 그것에 대해 발끈했습니다. 신화는 원래 주황색을 쓰는데 멀리서 보면 아이콘의 팬클럽이 들고 있는 풍선 색이나 신화의 팬클럽인 신화창조(이 팬클럽은 제법 오래 되었기 때문에 클럽 멤버들의 상당수가 30대입니다.)가 들고 있는 풍선 색이 똑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댓글들이 오가고, 실제로 콘서트장에서 만나면 서로 막말을 하는 상황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공통의 구심점으로 뭉쳐지는 그 집단의 공동체성이

다른 팬들을 배격하는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로 뭉쳐있고 시간을 같이 하면서 형성되는 끈끈함이 대단하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욱더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긍정적 영향

##### ① 또래 집단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경험

하지만 사생팬이나 다른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은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십대 때 가지는 일시적인 선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팬클럽 활동도 같은 관심사와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이라는 경계를 넘어 여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ZICO   
@ZICO92

누누히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 학대 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팬사랑이 아니에요.



G-DRAGON   
@IBGDRGN



요즘따라 어린 친구들이 집까지 찾아온다.. 현 관문 앞까지도.. 다 이해하는데 이걸 정말아닌 듯싶다.. 엄마랑 누나가 밤에 집에들어오다 너무 놀란다들.. 숨어있지마라 집은오지말아줘

사진2. 사생팬들에 의한 피해를 토로하는 아이들 스타들의 SNS 문구들

② 스트레스 해소 : 숨 쉴 수 있는 공간  
 사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그에 비해 그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음악을 듣고 그들을 좋아하는 행동들은 일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를 떠올려보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가끔 아이들 노래를 틀어놓고 그들의 춤을 따라 추고는 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런 시간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유일한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선호하는 문화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구멍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 4. 결론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아이들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문화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였을 때 조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에는 여자후배들도 있고, 남자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후배들이 저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툭툭거리고, 물어보면 아니라고만 답합니다. 조모임하자고 하면 그냥 재미없다며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네이트'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스포츠 뉴스를 챙겨보고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뉴스가 끝난 뒤에 하는 스포츠 뉴스를 열심히 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올라와 있는 기사의 제목만 보기도 하고,

스포츠 뉴스는 잠깐 1, 2분, 정도 시간을 내어 봤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그 툭툭거리는 남자 후배에게 '야, 내가 이번 주에 영국의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봤는데 말이야. 대단하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사 제목만 아는 수준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면서, "누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더니 영국축구 이야기를 막 쏟아 놓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저에게는 너무나 지루했어요.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이 선수랑 저 선수랑 경쟁자라는 등, 드리블이 어떻다는 등, 포백 포메이션이 좋다는 등, 감독의 전략이 잘못 났다는 등, 신나서 떠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 그랬구나. 내가 한번 네가 말한 경기들을 챙겨볼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경기들을 다 챙겨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 친구와 저 사이에 대화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남자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누나 짱이야. 해외 축구 중계경기 챙겨보는 여자 본 적 있어?' 물론 저는 해외 축구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이름을 5명 정도 알았었고 요즘 무슨 경기가 화제인지 정도만 파악한 후에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자 후배들의 말을 들어보니 조장 누나가 자신들과의 대화를 위해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해준 것이 매우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들과 대화의 접점이 생기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문화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문화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문화만큼 아이들의 입을 열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수고스러워시겠지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은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보신 후에, 한 주 동안 인터넷으로 그들의 노래나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선생님도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 선생님이 나와 이야기를 하려는 분이구나, 세대차이가 많이 나지만 나에게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선생님은 모르는 게 많으니 너희들이 요즘 관찮은 아이들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줄래?"

라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형식도 관찮을 것 같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끝)

## ‘구원이론을 바탕으로 선교활동’ 으로 비춰 본 참된 구원의 세계

김도현 | 사랑부 학생

길거리를 걷다보면 가끔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교인들과 마주할 때가 있다. 흔히 선교단이라 불리는 그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설파한다. 기타나 건반연주와 함께 CCM이나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활에 필요한 약간의 물건이나 먹을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략히 첨부해 건네주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선교방식은 다양하다. 이처럼 저마다의 방식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교인들이지만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동일할 것이다. 더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그 존재의 참됨을 믿게 하고 그리하여 상대로 하여금 복음의 집성체인 교회로 발걸음 하게 하는 일. 방식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선교활동은 결국 선교대상을 자신들과 같은 교인으로 만든다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길을 가다 선교활동을 마주할 때면 간혹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선교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어보자면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천국-구원이론에 대해서 교인인 내가 이런 부정적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더라도 성경 전체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에 교회 어른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끼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내가 아닌 어디까지나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는 천국-구원이론을 맹신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로 오세요.’ 정도의 발언은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고, 나 또한 길에서 이런 외침을 하는 선교인을 많이 마주쳤다. 이 단순한 말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서, 기독교인으로써 당연하게 신뢰해야하는 말이고, 때문에 선교활동 시 가장 많이 설파해야할 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자극을 위해 약간의 왜곡이 가미된다는 것이다. 성약설에 기반해 마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근본이 죄인으로써, 그들 모두 지옥행이 예고되어있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선교대상은 뜬금없이 죄인이 되었고, 뜬금없이 사후에 지옥의 고통을 평생 받게 된다는 저주를 받게 된 셈이다.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 옳은 소리겠지만, 아마도 일반인일 확률이 높은 그 선교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당히 옹호한 신 따위로 오해하게 만들 확률이 높다.

천국-구원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교활동의 위험성은 이 밖에도 다양한데, 그중 결정적인 것은 ‘선교대상의 단점이나 개인적 콤플렉스의 원인’ 이 ‘죄’ 로써 폄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교회 밖에서 만난 선교사들 대부분이 ‘죄’ 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선교대상을 자극하고 있었다. 물론 자극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극의 정도가 도를 넘는다면 그것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심해야한다.

실제로 나는 모교인 강남대학교 앞에서 자극의 정도가 도를 넘은 선교를 직접 체험했던 경험이 있다. 길을 가던 나에게 선교사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고 나는 교인이었기에 일말의 거부반응 없이 그녀가 신청한 대화를 받아들였다. 그녀와의 대화중 그녀는 내 몸이 불편한 것일 내 알아냈고, 내 신체장애의 원인을 ‘죄’ 라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워낙 시간이 지난 일이라 당시에 그녀가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었음은 분명히 기억한다. 나 또한 교인으로서 그 말이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축도까지 해주었다. 교인이기에 천국-구원이론을 신뢰하던 나에게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고, 때문에 그녀의 말과 행동에 일말의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선교대상이 내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장애인이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적극적인 동조를 했던 나이에 그녀의 발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짐작컨대 다른 장애인에게 선교할 기회가 생겼다면, 그녀는 물론 상대적으로 유해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선교인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선교발화의 논리적 근거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위 같은 발언을 들었을 장애인의 심정은 예상컨대 나만큼이나 유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 니 어쩌면 불쾌함마저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천국-구원이론에 입각한 선교자세는 그것이 정서적이건 신체적이건 재물적이건, 어떤 측면에서건 실재하는 개인의 단점을, 자칫하다 그 원인이 죄에 있다고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선교대상에게 교회에 대하여 꽤나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존재한다. 현대 사회는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선교자세는 진짜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의미의 구원이긴 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약설에 기반 해 악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라 한들, 그 본질의 악함으로부터 야기되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구원에 다가가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살인자나 강간범과 같은 중범죄자들에게 같은 선상에서의 구원을 선물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한 구호품이 아니며, 이러한 참된 구원의 정서에는 반드시 '성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몇몇 거리 선교자들이 교회를 믿어아만 죄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까닭. 한국교단을 논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한국의 개신교는 1800년대 조선에 들어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양인(洋人)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며, 때문에 이들과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유희화나 양반집단, 즉 당대의 평민들이 아닌 지식인들이었다. 이는 곧 초기의 기독교는 지식인들의 종교였다는 소리다.

하나님이 말씀한 참된 구원은

우리를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참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지식'이란 예나 지금이나 지배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은 수평적일 수가 없었고,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평등했던 구원이론은 '죄'를 초점으로 삼아 왜곡되어왔던 것이다.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성화적 삶을 산다면 갈 수 있는 천국이, 마치 교회라는 공간에 와야지만 갈 수 있는 지극히 배타적인 성향의 이상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한 구원이론에 입각한 선교는 '평등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선교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방법론적으로 결코 적합한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구태의연하게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는 셈이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런 선교는 위화감만 낳을 뿐, 대중을 설득시킬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선교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물론 그 근본적인 지점을 본다면 내세론적인 '영의 천국행'도 분명 있겠지만, 하나님의 따듯함으로부터 얻어지는 '삶에 대한 작은 위로'가 더 크다고 본다. 즉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현세구원이 내세구원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뜻이다.

선교를 하는 대상에게 앞으로 올 구원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준다면, 그는 분명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로소 현세구원이 실현되는 순간일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사회에 치이고 있으며, 그로인해 노예스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스스로를 얽매지 말아야한다. 하나님이 말씀한 참된 구원은 우리를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할 줄 아는 참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5~6)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축복 속에서, 세상의 많은 연약한 영혼들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



# 떠올리게 된 기억

김수아 | 유아부 교사



전도사님께 글을 부탁 받고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다가 문득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다섯 살 때였어요. 주일 학교 교사이셨던 아버지 손을 잡고 여름 성경 학교에 가던 길이었는데 아마 한 6시 반에서 7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전날 밤에 가슴이 너무나 설레어서 일찍 일어났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는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주일학교 교가를 종알종알 부르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유난히도 찬란한 햇살과 광대하게 펼쳐져 있던 구름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그 광경이 어린 제게는 마치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유년기 시절의 다른 기억은 거의 없지만 그 순간 보았던 하늘빛과 구름 모양은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찬양 부르는 것이, 친절한 선생님들과 맛있는 간식이 마냥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18:3)’ 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유아부에서 맡고 있는 반은 갓 24개월을 넘긴 천사들이 네 명이나 됩니다. 주일날 아직 기저귀도 다 떼지 못한 아기들에게 공과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채 한 문장도 말을 마치기가 힘들 때가 부지기수지요. 어쨌든 한 마디라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는 싶지만 흐지부지 마무리하다가 간식을 먹고 끝내고는 합니다. 그럴 때 마다 노련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 하루 돌봐 주는 역할에 지나지는 않는지 되짚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문득 다섯 살 때의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위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며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지 기대가 되네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어릴 때 부르던 찬송 한 소절, 암송했던 성경 구절 한 마디가 이 죄악 되고 녹록치 않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평생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며 미소 짓게 만드는 기억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반 천사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꼬마 제자들을요.



유아부 11월 암송대회

# 칠흑 같던 문학의 밤

이경희 | 유치부 교사

우리 때는 그랬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었고 독서란 곧 문학작품을 읽는 거였다. 가을이 깊어지면 대부분의 고교 문예반은 물론 교회의 고등부에서도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수채화로 멋지게 그린 문학의 밤 포스터가 여기 저기 붙고 한껏 감상에 젖은 자작시와 산문들이 낭독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내가 다니던 중고등부에서도 문학의 밤을 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건 하자라기보다는 하고 싶다는 말에 가까웠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합쳐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인원은 기껏해야 스무 명 안쪽이었다. 그 중 고등학생은 우리 1학년 대여섯이 다였고 2, 3학년 선배들은 어쩌다 교회에 얼굴을 보이는 정도였다.

문학의 밤을 하자는 말을 처음 꺼낸 건 친구 옥분이와 영숙이었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슨 수로 문학의 밤을 한단 말인가. 영숙이와 옥분이 들은 중 3 때 같은 반이어서 나는 개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에는 썸병이라는 걸 훤히 알고 있었다. 피아노 반주를 하는 미순이나 우리한테 괜히 시비를 걸던 남자애들 두셋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게 뻔했다.

“우리 반에 서울시 영시 암송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애가 있어. 개가 우리 문학의 밤에 와서 암송을 해주겠다.”

영숙이의 이 한 마디에 우리는 엄청 고무되었다. 영시라니 얼마나 멋진가. 그럼 우리도 남들처럼 문학의 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기대에 우리는 들떴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씩 낭송하자고 했다. 영시 낭송이 있으니 우리는 아무거나 하면 된다며 맘 편하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나는 비겁했다. 나는 끝까지 작품낭송을 못하겠다고 했고 그러자 애들은 날 보고 사회를 보라고 했다. 사회는 그저 순서만 말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했다. 토요일 교회에 모여 무작정 포스터부터 미리 그려다. 어둡침침한 색으로 교회를 그리고 더욱 어두운 색으로 시간과 날짜를 쓰고 바탕색마저 킁킁하게 칠을 했다. 개떡 같은 포스터를 여러 장 그리고 나니 과연 누가 올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아무도 안 오게 낫다는 생각도 났다.

그런데 의외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학생부 예배에 도통 나오지 않던 고남자애가 자기도 참가하겠다고 나타났다. 개는 우리 교회 토박이로 모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키가 크고 흰털했다. 개가 당연한 듯 사회를 보겠다고 하자 다들 반색을 하며 그럼 남자 여자가 같이 사회를 보면 되겠다고 했다. 나는 그 애와 같이 사회를 보게 된 게 좋았다가 싫었다가 했다.

또 다른 지원자도 나타났다. 가뭄에 콩 나듯 학생부에 나오던 고 2 선배가 작품을 낭독하겠다고 했다. 옥분이는 그 선배가 백일장에 나가 상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늘 얼굴을 찌푸리고 고민에 찬 눈빛으로 말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는데 국어 참고서에 나온 시인 이상의 초췌한 몸골과 좀 닮아보였다. 우리는 그가 진정 문학의 밤에 걸 맞는 작품을 써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문학의 밤을 며칠 앞두고 우리는 포스터를 붙이러 다녔다. 우리 교회는 미아리 고개 넘어 길음 시장 안에 있었으므로 주로 사람들이 바글대는 시장통 전봇대에 포스터를 붙였다.

개선장군처럼 교회로 돌아와 우리는 연습을 했던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기억은 없다. 여자애들은 피아노주변에 모여 키득대고 남자애들은 본당 맨 뒤편에 몰려 앉아 웅성댔다. 미순이가 갑자기 잘난 체하는 표정으로 아드리스를 위한 발라드를 팡팡 쳐댔고 남자애들은 야 넌 그것밖에 칠 줄 모르냐고 야유를 했던 건 분명하다.

우리 중 누군가가 조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했다. 우린 이차 싶었다. 자고로 문학의 밤이라면 붉고 푸르스름한 조명이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본당 조명은 앞쪽에 대여섯 개의 형광등이 연꽃처럼 꽃혀있는 것이 다였다. 그것만 켜면 작은 본당이 뒤흘까지 환했다. 그 환한 빛 아래서 문학의 밤을 할 수는 없었다.

홀연히 한 청년오빠가 나타났다. 그는 교회에서 늘 마주치던 이였다. 그는 몸집이 왜소하고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웃음을 띠고 있었다. 중고등부 토요일집회에 오면 그는 마당구석에서 우리를 향해 실없이 웃어 주었고 우리가 주일 예배 후 좁은 마당에서 떠들고 있노라면 아줌마들 사이에서 국수를 먹고 있었다. 그런 그가 형광등을 셀로판지로 감싸면 된다며 자기가 토요일에 와서 붙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몹시 신난 얼굴이었고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파블로 피카소 | <책 읽는 소녀>

문학의 밤이 열리는 토요일 우리는 일찌감치 교회에 모였다. 청년 오빠는 셀로판지는 물론 사다리까지 들고 나타났다. 그는 높이 매달린 형광등에 빨강 파랑 셀로판지를 빈 틈 없이 붙여주었다. 불을 켜보니 오후의 햇살아래 형광등이 곱게 빛났다.

영숙이가 영시 낭독자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 애는 키도 크고 아주 예뻐는데 우리와는 말도 하지 않았다. 새침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소박한 아니 어찌보면 초라한 본당을 둘러보기만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우리는 본당의 불을 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세상에 맏소사, 셀로판지로 가린 형광등은 너무나 어두웠다. 형광등 바로 아래에 선 사람의 얼굴이 시커먼 그림자로 보일 지경이었다. 다른 조명이라고는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본당은 그야말로 칠후 같은 어둠에 잠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셀로판지를 떼어내고 형광등빛이 쏘아대는 가운데 문학의 밤을 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차라리 암흑을 택했다. 문학의 밤 시작이 가까워오자 중학생 후배들과 중고등부를 지도해주시던 선생님 몇 분, 그리고 교회 어르신 몇 분이 터듬거리며 본당에 들어와 겨우 자리에 앉았다.

첫 순서는 영시 암송이었다. 새침한 그 애는 롱펠로우의 "Psalm of Life" 를 낭랑하게 암송하기 시작했다. 발음이 기가 막혔다. 본당 문이 열리며 일단의 남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뭐야 이거? 뭐가 보여야 앓을 거야냐 왁자지껄 했다. 이쉽게도 그들은 영시를 낭송하는 그 예쁜 여학생의 실루엣만 봐야 했다. 그들은 아 뭐야 시발 그냥 가자, 아 좀 있어봐 자기네끼리 큰 소리로 다투었다. 다행히 그들은 어둠에 갇히면서 점차 목소리가 줄어들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옥분이는 시도 산문도 아닌 짧은 글을 준비해왔다. 옥분이는 원고를 있는 대로 들어 올려 희미한 빛 아래서 글자를 읽으려고 애를 썼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였다. 하나같이 원고가 적힌 종이를 높이 올리고 고개를 젓힌 채 시시한 글들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고2 선배가 나왔다. 그 역시 고개를 젓히고 기나긴 글을 읽었다. 그는 미칠 것 같은 청춘의 불안과 이유도 모르는 괴로움을 가감 없이 토해냈다. 뒤에 있던 남학생들이 우르르 일어섰다. 에이 뭐냐 이게, 그들은 화를 내며 나가 버렸다.

순서가 다 끝나자 청년 오빠가 다시 나타나 형광등에서 셀로판지를 떼어주었다. 환하게 밝은 빛에 우리들의 흥분된 얼굴이 드러났다. 어린 너나 할 거 없이 기꺼움에 도취된 모습이었다. 나와 같이 사회를 본 남자에도 좋아라했고 나도 그랬다. 어린 한참 떠들며 예배당을 떠나지 못했다. 우리가 문학의 밤을 이리 잘 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찡고 까불었다. 고 2 선배는 말없이 사라졌고 우리는 그 선배는 좀 미친 거 아니냐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기껏해야 칠후 같은 어둠 속에서 시시껄렁한 글을 터듬거리던 주제였건만 우리는 우리끼리 문학의 밤을 해냈다는 성취감에 기고만장했다.

우리는 셀로판지를 붙여준 청년 오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면에서 영시를 낭송하러온 애가 언제 돌아갔는지도 몰랐다. 어둠속에 그저 앉아 있어준 선생님과 어르신은 물론이고 재밌는 구경거리인가 싶어 왔다가 김만 새고 돌아간 동네 고교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 따위는 일절 없었다.

참 철없고 그래서 누구보다 호사스러운 시절이었다. (끝)

# 올 나잇 크리스마스 이브!

이경희 | 유치부 교사

초등학교 5학년 겨울이 다가오자 교회는 성탄준비로 부풀어 올랐다. 그 때 내 귀에 그럴 수 없이 설레는 말이 들려왔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올 나잇 으로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올 나잇이라니, 나는 그 말에서 미국 영화의 황홀한 파티를 떠올렸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한밤 내내 깨어있을 거라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걸까? 나는 무턱대고 가슴이 뛰었다.

사실 나는 올 나잇이 불가능했다. 우선 나는 교회에서 뜨내기였다. 이사 와서 친구 없이 다니며 밥 먹듯이 교회를 빠지고 있던 터라 같이 올 나잇을 할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우리 집에는 해가 지면 집으로 와야 한다는 농촌 시절 규칙이 엄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밤늦게 다니면 불같이 화를 내다못해 매를 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동네 애들이 깜깜한 밤중까지 놀 때에도 나는 나갈 수 없었다. 문간에서 애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며 때문에 걸린 문빋장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었다. 그런데도 나는 올 나잇이라는 말에 흠뻑 빠져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하리라 혼자서 작정했다. 너무나 흥분해서 올 나잇이 안 되는 이유 따위는 떠오르지도 않았다.

.....

올 나잇의 유초등부 순서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남녀 아이들이 한 쌍씩 걸어 나가면서 나는 기쁘다라는 찬송을 하는 것이었다. 일본옷을 입은 애들은 와타시와 우레시라고 했고 중국옷을 입은 애들은 와이짱 쿨라 라고 했고 예쁜 드레스와 양복을 입은 애들은 하이 엠 해피 라고 노래

하면서 걸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은 애들이 나는 기쁘다 하고 노래 부르며 걸어 나와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인사를 했다.

그 애들은 너무나 멋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복을 입은 남자가가 늙름하고 준수했다. 처음 들어보는 나는 기쁘다 노래도 산뜻했다. 하지만 그 애들이 왜 기쁘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것일까. 나는 와이짱 쿨라라는 말이 웃기다 싶어서 집에 와서도 흥얼거렸다.

나는 겨우 성경 암송을 맡았다. 올 나잇에 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였다. 우리 반에서 두 명이 나가게 되었는데 젊은 여자 선생님이 지성껏 우릴 지도해주었다. 다들 한복을 입는다 무용을 한다 노래를 한다 하고 시끄러운 본당 구석에서 방석을 가림 판 삼아 셋이 앉아서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다. 아마 시편이었던 것 같다. 나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낱말과 문장들이 이리 저리 빠져 나가 애를 먹었다.

.....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올나잇 파티의 날! 나는 엄마더러 교회 갔다 온다고만 하고 교회로 갔다.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모두 모이니 본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본당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득히 앉았고 키가 큰 어른들은 본당의 창가와 뒤쪽에 죽 둘러서서 앞에서 하는 순서들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역시 모든 순서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나는 기쁘다였다. 기모노에 차파오를 입은 애들이 걸어 나오고 한복을 곱게 입은

애들이 걸어 나오며 신뜻한 노래를 부르니 어른들도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 애들의 부모들이 기꺼워하고 주변에서 칭송을 해주는 소리도 들려왔다. 이어서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올라와 엄청나게 긴 성경을 막힘없이 암송했다. 사람들 사이에 놀라움의 감탄이 퍼져나갔다.

독창과 중창 등 여러 순서가 지나 사람들이 지루해질 무렵 드디어 우리 차례가 돌아왔다. 한 남자분이 뛰어왔다. 이 애들 안하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선생님한테 묻는 게 아닌가. 고등학생의 암송에 이미 기가 죽어 있던 나는 그러면 그렇지 우린 못하겠구나 하는 마음에 더욱 풀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은 단호했다. 안된다고 약간 어조를 높여서 말했다. 정말 멋지셨다. 난 우리 선생님이 고마웠다.

청중들이 웅성거리며 잡담을 하는 가운데 나는 연습한 대로 암송을 잘 마쳤다. 한두 군데서 잠깐 멈췄지만 크게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나와 같이 연습한 친구는 앞부분만을 좀 암송하고 다음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선생님은 무척 아쉬워 하시면서도 못한 친구를 위로해주었다. 그러나 철없던 나는 우쭐했다. 나는 너보다 잘했어 하며 뽐내는 마음이 역력했었다.

.....

다음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사실 좀 안쓰럽다. 나는 혼자서 어른들의 큰 키 사이로 순서를 보느라고 이리 저리 목을 빼고 있는 것이다. 아마 암송 순서가 끝나자 우린 헤어질 거 같고 자리도 없어졌던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흥분해있었다. 올 나잇 아닌 가. 나는 당연히 새벽까지 있을 참이었다. 엄마가 며칠 전에 살색과 빨간색을 섞어서 짜준 장갑 한 짝이 바닥에 떨어졌다. 얼른 집어 들면서 주머니를 살펴보니 나머지 장갑이 없었다. 나는 걸핏하면 장갑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집에 있는 털실들을 엮어서 밤늦게 까지 장갑을 떠주곤 했다.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나는 마음에 나는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혹시 장갑이 떨어져 있는지 찾아보러 다녔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혼자 남아 있는 어린애는 나뿐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남아 있는 아이들은 다 부모와 같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문득 집에 가야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나는 좀 당황했던 것 같다. 나는 급히 교회로 나와 삼선중학교 축대 아래를 걸어서 집으로 갔다. 길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축대 앞 한옥 들은 어둠에 잠겨있는데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생각은 없었다. 나는 시원한 해방감이랄까 뭔가 짜릿한 통쾌함을 느끼며 캄캄한 길을 걸어갔다.

집에 가보니 다들 잠들어 있었다. 늦게 다니는 것을 그리 싫어했던 아버지조차 깊이 잠들어 계셨으니 결국 날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었다. 그제야 나는 좀 쓸쓸해졌다. 나는 방에 들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언니 옆에 누웠다. 언니는 바보구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올 나잇하는 날이란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다.

5학년 이후로 성탄절 올 나잇은 없었다. 아니다, 딱 한 번 더 있었구나. 내가 다니던 대학부를 지도하시던 강도사님이 성탄절 전야엔 교회에 불을 켜야 한다며 올 나잇을 제안했었다. 우린 케이크를 자르고 가스펠송을 목이 설 때까지 불러댔고 웃놀이도 했다. 새벽 두시가 지나자 여기저기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아예 의자를 붙이고 잠을 청하는 애들도 있었다. 그 때 강도사님은 여전히 눈을 빛내며 공기놀이를 하자고 했다. 그는 귀신같이 공기놀이를 잘했다. 큰 손위에 반드시 다섯 알의 공기가 탁하니 올라앉았다. 우린 강도사님은 빠지세요, 아우성을 쳤다.

.....

나는 아직도 성탄절 아침에 예배 보러가는 게 좀 쉽다. 예수님은 지난 밤 이미 태어나셨지 않은가.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온 시간도 한밤중이었다. 성탄절 전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같이 축하도 나누고 캄캄한 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끝)

(주 : 공기놀이 천재 강도사님은 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심.)



옛 미도파 백화점 | 출처, <http://www.igoodnews.net/>

# 맘매, 맘매!

김성은 | 초등1부 교사

교회학교에서도 매를 들어야 하는가?

아동 학대가 그 어느 때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뜬금없이 매 타령이냐고 한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매가 필요한 때라서 어려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우선, 매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묻고 싶다.

성경은 매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매는 경고와 교훈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이나 징계의 수단으로 매질이 이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아이의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삼하 7:14; 시 89:32), 미련한 자를 일깨우며(잠 14:3; 26:3),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히 12:10) 매질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잠언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매 백 대'로도 고치기 어렵다고 했다(잠 17:10). 그와 동시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잠 23:13-14)고 했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잠 29:15)고 함으로써 매의 유용성과 교육적 기능을 역설하고 있다(잠 17:10).

매로써 제지를 다스릴 수 없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그 제지를 선생의 가르침에서 제외시켜 쫓아버리는 것이다. 그 제자에게 더 이상 매를 들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조치라는 말이다. 전승에 따르면, 선생은 제자를 추방할 때에 쫓겨나는 제자에게 '쫓겨난 자'라는 표시를 하여 내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다.

그렇다. 매를 든다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의 장래를 염려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매를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매를 드는 나와 매질당하는 그가 결코 남이 아님을 확인하는 뜨거운 열심이 있기에 수행하는 작업이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가리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삼하 7:14)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히 12: 7-8)고 일깨우고 있다.

.....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저자 이규테 님의 글에서 매와 관련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옛날 시장에 나오는 질 좋은 빗자루를 '서당비'라 했다. 자식을 서당에 맡긴 부모들이 한 달이면 한 번씩 산에 가서 나긋나긋한 회초리 한 묶음을 꺾어다가 서당 훈장에게 맡겼다고 한다. "내 자식, 이 회초리 다 닳도록 쳐서 사람 만들어 달라." 는 의미에서 맡긴 싸리였는데, 매번 그것이 남아돌았기에 그 싸리를 빗자루로 엮어 서당의 부수입으로 삼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것이 서당비의 유래다.

제자들 앞에 설 때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흥분하지도 낙담하지도 말자.  
 대신,  
 모든 허물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조용히 매 맞으셨던  
 주님의 그 모범을 좇기로 하자.

매를 치는 부위는 각 문화마다 독특한 양상을 띤다. 전통적으로, 영미 등 게르만 계열 나라들에서 체벌 부위는 볼기(엉덩이)를 때리는 것이었고, 프랑스 등 라틴계에서는 귀나 코를 잡아 끌어올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것이었고, 아프리카는 등 짝을, 힌두 문화권은 이마를, 일본은 손바닥을, 한국은 종아리가 체벌 부위였다고 한다. 교육적인 매를 '초달'(楚撻), 가르침을 '편달'(鞭撻)이라 함도 회초리로 종아리를 친다는 뜻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매로 사람을 다스리는 편달문화가 발달해 있었다. 이규태 본인도 어렸을 적 짓궂은 장난을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들킨 일이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어린 손자를 앞세우고 찾아간 곳은 선친의 무덤 앞. 그리고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린 채 곁에 질린 손자의 손에 회초리를 쥐어주며 치게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후 못된 짓은 다시 할 수 없었다는 일화를 전한다.

가뭇이 오래 지속되거나 인륜 도덕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 해당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은 자신의 악정(惡政)에 대한 천심의 응징으로 보고 '천심매'를 자칭했다고 한다. 원님이 동헌 앞에 편대(鞭臺)를 쌓아놓고 그 위에 바짓가랑이를 걸고서 올라서면 복면한 포졸들이 가죽채찍을 들고 원님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후려했단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도자는 자신의 책무를 다잡았다.

이처럼 매와 관련된 문화는 지역과 시대정신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면이 없지 않으나, 매를 드는 마음은 한결 같음을 알 수 있다.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매를 맞는 사람과 매를 드는 사람 사이의 뜨거운 관계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격이 최우선시 되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오늘, 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으로 매를 든다는 것은 참으로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교회학교에서도 매를 들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겠지만 나는 감히 매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를 들되 가르치는 아이, 애먹이는 제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나를 향해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깨어 있지 못한 불성실을 자책하며 편대에 올라 바짓가랑이를 걸기로 한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매를 드셨다는 기록은 없다(그분이 매를 드신 때는 성전을 정화하실 때였다). 다만, 듣는 귀가 없었던 제자들,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들, 심지어 자신을 욕하고 배신하던 그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이다(요 13:1).

그리고 그들 모두가 외면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매 맞으시고 조롱받으시며 십자가 끄찍한 형틀에 달리셨다.

제자들 앞에 설 때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흥분하지도 낙담하지도 말자. 대신, 모든 허물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조용히 매 맞으셨던 주님의 그 모범을 좇기로 하자.

주일을 앞둔 밤,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매 한 자루를 가방에 넣어본다.

'내일은 반드시 매를 들어야지.'

결심하면서. (끝)

#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이시연 | 초등2부 교사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던 소설 가운데 하나가 마크 트웨인의 <톰 소녀의 모험>이다. 말 그대로 개구쟁이 톰의 여러 가지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 앞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어느 날 톰은 친구를 만났다. 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 물건을 친구에게 주고 대신에 주일학교 성경암송시간에 성경 두 구절을 외우면 받는 상인 파란 딱지 한 장과 바꾸었다. 좀 더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은 빨간 딱지와 바꾸었다. 빨간 딱지 한 장은 파란 딱지 열 장과 맞먹었다. 이번에 톰은 낚시 바늘처럼 비싼 물건을 노란 딱지와 바꾸었다. 노란 딱지 한 장은 빨간 딱지 열 장과 같았다. 며칠 동안의 물건교환을 통해 톰은 파란 딱지 열 장에 빨간 딱지 아홉 장, 게다가 노란 딱지 아홉 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톰은 성경을 열심히 외워 모은 게 아닌, 물품교환을 통해 모은 딱지들을 가지고 성경을 달라고 주일학교 여교장 선생님께 요청했다. 왜냐하면 노란 딱지 열 장을 모은 학생에게는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톰이 성경을 받는 그 날 지방 판사가 교회를 방문해서 톰에게 말했다.

“나하고 여기 있는 숙녀 분께 네가 암송한 구절을 조금 들려주지 않겠니? 자, 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이름을 틀림없이 알고 있겠지? 그중에서 제일 먼저 제자로 지명된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겠니?”

꾸물거리던 톰이 입을 열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들롱나던 순간의 톰의 표정이 상상이 되면서, 웃으면서 책을 펼쳐보던 기억이 새롭다.

9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초등2부에서 성경암송대회를 열었다. 빌립보서 2장 1~11절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암송과제였다.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참여했다. 많은 교사들이 먼저 앞에서 말씀을 함께 외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들 차례. 반별로 모여 학생들은 자신이 외운 말씀을 선생님께 확인받았다. 몇 주일 동안의 시간을 주었지만 딱 한 절만 외워 참가상만 받은 아이들, 절반 이상은 외워 우수상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전체 말씀을 외우고 모든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말씀을 외운 아이들. 참가상,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은 모든 초등2부 어린이들은 그에 해당하는 상으로 귀여운 장난감 등을 받았다.

성경암송대회를 마친 지금 생각해본다. 성경말씀을 다 외우진 아니면 한 절만 외우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은 성경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성경을 외우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기쁨의 시간을 누렸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자신의 실력으로 외우고 확인받고 참가상 선물을 받고 기뻐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꾀돌이이자 딱지 부자였던 톰 소녀가 받은 성경이 전혀 부럽지 않은 시간이었다.





# 교회 오는 아이들

박선아 | 초등3부 교사

벌써 한해가 지나갑니다.

글을 쓰려고 하니 그동안 초등3부에서 함께 한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배시간에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하는 모습들, 간혹 부은 눈으로 초점이 사라진 눈으로 앞을 응시하는 모습, 친구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모습들, 정신없이 늦게 달려와 털썩 의자에 앉는 모습들, 오자마자 폰을 들고 만지작 하는 모습들, 오자마자 친구먼저 찾으러 두리번 거리는 모습, 선생님 먼저 인사하면 수줍게 또는 시크하게 인사하는 모습들, 참 익숙한 모습들입니다.

어릴 적 생각이 간혹 납니다. 저는 초점이 사라진 눈으로 앞을 응시하던 아이였던 거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커서 지금 여기서 봉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저희 반은 딱 3명인데 모두 잘 출석합니다. 어느 날씨 좋은 주일날 반별로 선생님과 식사를 하는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메뉴를 물어봤더니 한 아이는 진지한 얼굴로

“멀리가요~ 아주 멀리 가면 안되요?”

하며 간절히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멀기만 하면 다 된다는 조건(?)하에 우리는 아주 먼 신천역 쪽에 있는 떡볶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들은 눈이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더 수다스러워 졌습니다. 그 길이 아이들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였습니다.

평소에 사진기를 대면 고개를 돌리던 아이들이 인증 샷 찍자니 다들 예쁜 표정으로 브이를 합니다. 조 공부 시간에도 수다스런 모습들이 좋습니다. 간혹 배배꼬고 빨리 끝나길 기다리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 배틀 하듯 선생님만 보며

이야기 합니다. 그 목소리와 눈빛이 예쁩니다. 그래서 마치는 기도는 그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순서도 자신들이 정하고 잊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미만한 목소리였는데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 다가가는 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일인 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으니 우리도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일이 있어야 교제도 그 사랑도 알 수 있겠다 생각되고 또 배워갑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언제 느끼냐고 물어 보았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지 모르나) 기도 할 때 라고 얘기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그리고 교회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 〈광고〉

1. 〈깊고 푸른 얼굴〉 12월호에 원고를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소식지는 PDF파일로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내려받아서 보시거나 출력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각 부서의 소식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글이 있다면 매달 둘째 주 화요일까지 편집자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의도에 따라 원고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획과 편집에 함께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역시 편집자 전자우편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자 이메일 : nabinaru@gmail.com (윤철규 목사)

# 회상

정영화 | 고등부 교사

이 글을 쓰면서 지난 4년을 생각해보니 잔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1980년대 후반에 교회를 등록해서 구역 외엔 활동하지 않았던 4년 전 어느 날 주보에서 고등부 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을 드렸고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좌충우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학년은 1학년. 그런데 이 런! 아이들이 1명씩 나오다 아예 한명도 안 나오는 주도 있었고(이런 경우는 한 해 한 반 정도 있을 정도로 드문 경우) 초보 선생님의 마음은 어느새 깊숙이 숨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우는 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배시간 숙인 고개를 들게 하고 눈을 맞추는 데 1년이 흐르고 상민, 성연, 희영, 지산이랑 헤어졌습니다. (지산이는 1학년 때 학생인데 기숙사로 들어가 문자로만 인사하다 3학년 졸업예배에 극적으로 만난 학생입니다.)

다음해는 2학년 담임이었는데 힘들던 저에게 오히려 힘을 주던 건우, 세훈, 주은이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공과공부 시간에 같이 참여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들이 대학부로 올라가서도 잘 지낸다는 소식 듣는 것이 요즘의 소소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3년째는 고3 주은이는 2년째 맡게 되었고 주형이, 연재 모두 그림네요. 지금은 아주 예쁜 친구들과 고2 여학생 조안 유리 현비를 맡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아이들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이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컥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 된 신분을 감사 하며 사는 이들이 되기를. 4년이 지나니 아이들이 고1, 고2, 고3을 지나면서 많이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교육부서에 있는 저는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교사들 사이에도 신앙적 견해의 차이로

자주 의견들이 오가고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장은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께 지면으로나마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20대부터 50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으며 가치관을 형성해갔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의미를 모르고 힘들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임을 잊지 않게 가르쳐 주셔서 제 삶에 큰 힘이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교사를 마치는 그날까지 아이들에게 이 귀한 말씀 잘 전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나 고등부에서나 쉽지는 않았던 시간들. 그러나 늘 수고하시는 고등부 목사님의 깊은 말씀, 동료 교사 선생님들과의 친교, 아이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넘쳤던 지난 4년을 회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시연아빠의 '다음세대 문화 이해하기(11)'

## '병맛 코드' 읽기

안성희 | 고등부 담당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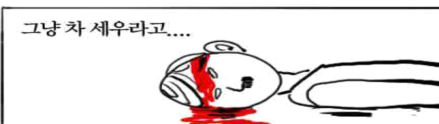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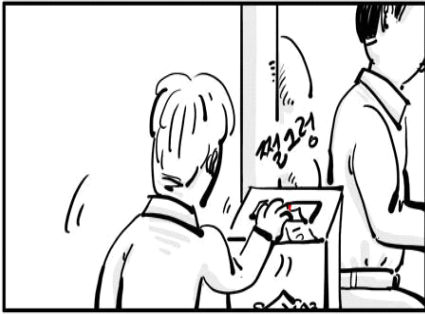
병맛, 어감부터 그리 친근하거나 유쾌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는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신조어" 라고 정의한다. 정의만 봐서는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병맛을 제대로 알려면 웹툰 작가 이말년의 작품을 보면 좋다. 그의 대표작은 네이버에

연재했던 <이말년 씨리즈>이다. 156편을 다 보기가 무리라면 그를 웹툰 작가로 데 뷔시켜준 <불타는 버스>를 보면 병맛 코드를 맛볼 수 있다. 한 편 분량이어서 금방 볼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전체 내용을 보면 제일 좋다. 이곳에서는 지면 상 간단하게 살펴보자.

아래는 간단한 줄거리이고 그림은 웹툰의 일부이다. 한 청년이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가 들어오자 담배를 물고 급하게 들어간다. 실수로 승차권 함에 담배꽂초를 집어 넣는다. 불이 점점 커지더니 버스 전체로 확대된다. 불이 난 채로 버스는 계속 달리고 사람들이 뒤쫓아 온다.



그들은 마치 어린 시절 소독차를 쫓아오는 아이들 같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기사는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하고 청와대로 돌진한다. 버스는 경찰이 형성하고 있는 저지선을 뚫고 결국 청와대까지 직행한다. 어떻게 되었을까?



- 박금주(45), 사망
- 봉광기(23), 사망
- 허준만(27), 사망
- 강정홍(39), 사망
- 편상훈(24), 사망
- 송죽격(87), 사망
- 형풍풍(27), 사망
- 소금영(44), 사망

돌진했으면 무슨 통쾌한 결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죽고 끝난다. 허무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병맛이다. 이러한 병맛 코드는 웹툰뿐 아니라 개그 코너나 드라마, 영화에도 들어간다. 다음은 병맛이 왜 인기를 끌었는지에 대한 위키백과의 설명이다.

병맛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완전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가'라는 시각이 있다. 잘 만들어진 완벽함과는 동떨어진 어설픈 낙서나 그림을 보며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경기침체로 자기 비하에 빠진 청년층이 스스로를 '병맛'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획일화된 기성품만을 내놓는 교육제도에 대한 반동'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의 취향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이라는 분석이 있다. 1980년대까지는 비범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가 공감을 얻어냈다면, 2000년 이후는 패배의식을 지닌 청년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병맛 개념이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웹툰 칼럼리스트 위근우 기자는 이말년의 병맛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기-승-전-와장창. ... 소위 '병맛' 장르로 분류되는 그는 '기-승-전'까지 이야기를 쌓아놓은 뒤, '와장창'이라는

특유의 의성어와 함께 말 그대로 이야기를 무너뜨리고 황당한 결말을 만들어, 허무와 당혹 사이에서 독특한 웃음을 만들어낸다. ... 사실 '와장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승-전'까지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성냥개비를 조약하게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과 공들인 건축물이 무너지는 건 충격파가 다르다. ... 고전에 대한 코믹한 변주의 쾌감, 변주를 통해 닿게 되는 '와장창'의 쾌가, 그리고 '와장창'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쾌감. 짧은 이야기 안에서 '와장창'까지의 과정을 제법 치밀하게 준비하던 이 웃음의 설계사는 좀 더 길고 튼튼한 웃음의 연쇄 고리까지 만들어냈다." - <웹툰의 시대> (알에이치코리아) 중에서

기성세대는 분명한 기승전결과 함께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즐겼다. 반면 다음세대들이 즐기는 영화나 드라마는 짜임새와 스토리보다는 재미와 볼거리에 주목한다. 그래서 일부 평론가들은 요즘 작품들에 대해 '짜임새나 스토리가 없는 작품'이라는 비판의 칼을 던진다. 과연 올바른 평가일까? 자세히 보면 위근우 기자의 분석처럼 짜임새와 스토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결말이 이전 작품과 다를 뿐이다. 결말이 허무하지만, 그 허무는 허무를 위한 허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반기, 극복에의 욕구에서 나온 것이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병맛 코드를 보며 짜임새와 스토리가 없다고 비판만 하기 전에 왜 젊은이들이 와장창이라는 허무한 결말에 열광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이다. 편견과 달리 병맛은 그저 단순히 가벼운 삼류가 아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심리를 읽는 것이 먼저이다. 십 대들은 병맛을 좋아한다. 혹자는 열광한다. 그 이면에는 답답한 현실에 대한 반감이 있다. 도저히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쾌감을 이렇게 해서라도 누리고 싶은 것이다.

# Ad Libros

※ 'ad libros' 는 라틴어로서 영어의 'from a book' 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책으로부터 인용했다는 뜻인데 발음은 '아드 리브로스' 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들을 이 꼭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 1. 제럴드 싯처 자음,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248-252쪽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른 질문들을 하도록 도전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니다. 왜 기도하는지를 묻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에게 관한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무엇 보다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의식하건 하지 못하건, 또 깊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역량과 기도하는 성향 등—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열망을 그보다 못한 것들로 채우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안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다른 모든 사랑과 열망과 즐거움들이 실제로 더 커지게 된다.

.....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즐거움이나 안전이나 인기 같은 것을 얻길 원하는 자가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원하는 연인과 같다. 사고 후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그리워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짓눌렸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압도되었다. 처음엔 아내가 살아서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랐다.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히드렛일-빨래를 정리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고, 서류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는 일 등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가 필요했다.

... 그러나 아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때문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아픔이 아직 남아 있다. 추상적으로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아내의 독특한 모습에 미소 지을 수 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싸운 일들까지도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내 마음을 준 사람과 맺고 있던 관계를 잃은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내가 전신마비가 되었더라도 함께 살 수만 있었다면 뭘 듯이 기뻐했을 것이다. 적어도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음성》 344-345쪽

특별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가 하나님 속을 썩인 것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삶의 행로를 정할 때 대부분 우리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계발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시험하시기도 한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의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가능한 자주 혹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경우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너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늘 우리를 준비시키신다.